

생애 마지막까지 책임진다... 부산, '생애말기안심돌봄' 출범

가사·정서·임종 간호 등 통합 돌봄 무연고자는 공영장례까지 연계 중위소득 70% 이하 전액 지원

부산시는 생애 마지막까지 안전한 존엄사를 위한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를 내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존 돌봄 제도에는 생애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해소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생애 말기안심돌봄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 ▲임종 간호 ▲공영장례를 연계해 생애 말기 환자에게 가사 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완성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은 ▲[가사 활동] 취사, 식사 준비, 청소 ▲[일상 생활] 관공서 동행 ▲[건강 유지] 복약지도, 운동 지원 ▲[정서 지원] 우



동행매니저를 통한 차량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울감 예방 지원 ▲[신체 청결] 세면, 구강관리 등이다.

임종 간호 서비스로는 ▲대상자 통증 및 증상 관리 ▲정서적 돌봄 ▲의료 기관 연계 등을 제공한다. 무연고자의 경우 공영장례 서비스를 연계해 고인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가 의뢰한 생애 말기 환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1시간에 최고 1만 7800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70% 이하 경우 시에서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비스는 1일 4시간씩 주 5일, 1개월간 지원되고, 필요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촘촘한 지역 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 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해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서

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도 추가했다.

시는 2019년부터 진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지난해에 부산, 함께돌봄 사업으로 확대해 기존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서비스에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추가했다. 지난해 총 1만 4461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형 의료·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생애 말기안심돌봄 서비스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돌봄 모델이다. 사회 관계망 확충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시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안전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모집

김해시는 '2025년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 일 기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체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금 1000만원 지원 ▲산업 재해 예방 우수 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 개선 지원금은 근로자 휴게실을 비롯한 작업 환경과 시설 개선, 안전 보건 관련 장비 구입, 산업 재해 예방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경산시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실시

경북 경산시는 치매 발병률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 서비스와 조기검진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치매 조기진단을 독려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조기 발견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전화 안내와 문자 발송 등으로 치매 검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환자에게는 치매 진행 지연 등 다양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산(경북)=김준한 기자

사천시

방문의해 맞이 숙박대전 실시

전국 최고의 해양 관광 도시이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인 경남 사천시는 2025 사천 방문의해를 맞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 OTA(Online Travel Agency)인 야놀자 플랫폼, 여기어때와 협업으로 '사천에 또와! 사천 숙박대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천에 또와! 사천 숙박대전은 야놀자 플랫폼과 여기어때에 입점한 사천시 관내 숙박업소 136개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할인 쿠폰을 발급해 주는 이벤트 행사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칠곡군

日 니가타현 쌀 산업 벤치마킹

칠곡군이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을 꾸려 일본 니가타현으로 벤치마킹에 나선다.

칠곡군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김재욱 군수와 이상승 군의장을 비롯해 농협, 농민, 외식업체와 유통 전문가, 연구기관 교수, 담당 공무원 등 총 23명의 연수단을 꾸려 니가타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일반적인 공무원 해외 견학과 달리 농업 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쌀 산업 전 과정을 집중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kih9@

창원, AI 의료기기 선도도시 노린다

국내 최대규모 KIMES 2025 참가 의료 바이오 상담 100건 '성공'

창원시는 의료 바이오 핵심 기술을 역내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 COEX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린 KIMES 2025에 참가했다.

사업화에 근접한 핵심 기술 보유 기업 및 국내외 의료기기 바이어 등과 100회 이상 심층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시는 ▲원천 기술 보유 기업 대상 창원시 의료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T target 설명회 8회, ▲사업화 근접 의료 바이오 핵심 기술 컨소시엄 상담 27회, ▲국내외 의료기기 바이어 상담 61회, ▲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의향서 13건 접수 등 성과를 달성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국내외 의료 바이오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2027년까지 이어지는 창원시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가졌다.

창원의 적극적인 의료 산업 육성



창원시, 'KIMES 2025'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개최 모습.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등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 바이오 첨단기반산업을 선도하는 창원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KIMES 2025에서 창원시 첨단의료기기산업 지원 정책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돼 기쁘다"며 "특히 100회가 넘는 상담을 통해 우수한 기업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창원시 의료·바이오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전남, 지구 85만 바퀴 탄소 줄인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 33건 지원

전남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개인 산주, 공공기관, 기업 등이 숲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신규 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벌기령 연장 산림경영사업 ▲수종 갱신 산림경영사업 ▲산림바이오매스이용사업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 등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277건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했으며, 올해는 3억5000만 원을 들여 33건 등록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한다. 행정비용 지원한도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1000만 원, 모니터링 시 1400만 원, 검증 시 500만 원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바라는 산림소유자는 토지 소재지 시·군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예상 총흡수량은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다. 승용차 한 대가 약 3조4000km(지구 85만 바퀴)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0억400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속도'

내달 1~3일 'SME Week' 개최

포항시가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에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중소기업 임직원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내에 위치한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체들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가속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시책에 동참하고자 AI 기술 중심의 특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1일에는 POSTECH 컴퓨터공학과 최승문 교수가 로보틱스와 햅틱스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며, 같은 대학 유환조 교수는 LLM(Large La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장.

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과 제조 AI에 대하여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한다.

2일에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혁신과 디지털 트윈, SNS 마케팅을 위한 동영상 편집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봄꽃·문화유산 어우러진 경주로 오세요"

내달 4~6일 '대릉원돌담길 축제' 개최

국내 대표 벚꽃 명소인 경주에서 '2025 경주 대릉원돌담길 축제'가 개화 시기에 맞춰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린다.

돌담길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 체험이 가득해 더욱 즐거운 축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APEC 정상회의 개최 해를 맞아 다국적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 한·중·일·영 언어로 번역된 안내 홍보물을 배포한다.

또 먹거리 주문 시간을 단축하고 QR코드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호 인력을 대폭 확대해 인파 밀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축제 운영에 앞장선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벚꽃거리예술로 △벚꽃라이프쇼 △드로 위 놀이터 △친환경 '함께해봄' (친환경 체험) △돌담길 레스토랑&마켓 △친환경 뽑기 등이 펼쳐진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